한국심리학회지 : 발달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 Development
2000, Vol 13, No 2. 53-64

초등학생에서 친사회적 도덕추론, 교실행동 및 인기도와의 관계

송 종 란 조 증 열[1)]

경남대학교 사회과학부

본 연구는 초등학교 1-3학년 아동들의 친사회적 도덕추론, 교사가 평가한 아동의 교실행동, 그리고 인기도와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참여자들의 도덕추론은 Eisenberg가 구분한 수준 1인 쾌락 중심, 수준 2인 필요 중심, 그리고 수준 3인 인정/대인간 중심 수준으로 나뉘어졌다. 도덕추론 수준에 따라 교사에 의한 교실행동의 평정과 인기도는 달라졌다. 구체적으로, 소년에서는 쾌락적 수준은 상위 수준보다 사회적 능력의 부족, 공격 행동의 증가, 학업부진의 증가, 그리고 낮은 인기도를 보였다. 소녀에서는 도덕수준에 따른 이러한 차이는 없었다. 또한 도덕추론은 사회적 행동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인기도에 영향을 주는 것이지, 사회적 행동과 독립적으로 직접 인기도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쾌락 중심과 필요 중심의 추론은 질적으로 다르다는 Eisenberg(1986)의 주장을 지지한다.

인지발달이론가들은 아동이 성숙할수록 추상적 사고가 증가하고, 타인의 인지적, 정의적, 지각적 관점을 이해하는 역할지각의 능력이 더 커진다고 주장한다. 인지능력의 증진은 아동이 도덕적 주제 - 정의와 관련된 추상적인 도덕원리를 이해하는 능력과 타인, 사회의 관점을 이해하는 능력 - 에 대해 추론하는데 질적인 변화를 준다(Eisenberg, 1986; Kohlberg, 1984). Eisenberg(1986)는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친사회적 도덕판단에서 덜 이기적이고, 더 타인 중심적이 되며, 더 추상적이 된다고 주장한다.

Kohlberg의 도덕발달 이론은 벌, 규칙, 권위자의 지시, 형식적인 규정 등을 다루며, 이는 금지 중심적인 도덕 영역을 다룬다. 반면에 Eisenberg(1986)는 벌, 권위자의 지시 등이 최소한의 영향을 주는 긍정적인 도덕 추론의 영역, 즉 친사회적이고 이타적인 주제를 다룬다. 즉 외부적 압력 즉 벌이나 규칙, 형식적 의무, 권위 등이 최소화된 상태에서 자신의 이익을 희생하거나 혹은 타인의 이익을 희생

1) jrcho@kyungnam.ac.kr

해야하는 갈등의 상황에서 행동을 선택해야하는 상황을 설정하였다. 이 때에 나타나는 도덕판단의 형태가 다르다고 가정하고 친사회적 도덕추론을 15개 이상의 범주로 나누고 이것을 다시 다섯 수준으로 구분하였다(송명자, 1995; Eisenberg, Lennon, & Roth, 1983).

Eisenberg의 수준 1은 쾌락적(hedonistic), 자기중심적이며, 도덕에 대한 배려보다는 자신 중심적인 결과에 관심을 가진다. 남을 도와주거나 도와주지 않는 이유는 자신에 대한 직접적인 이익, 미래의 상호주의, 자신이 좋아하거나 필요로 하는 타인에 대한 배려 등을 포함한다. 수준 2는 타인의 필요(needs of others) 중심으로, 자신의 요구와 타인의 필요가 갈등될 때에 타인의 신체적, 물질적, 심리적 필요를 고려한다. 수준 3은 인정(approval), 대인간(interpersonal) 혹은 고정관념(stereotyped) 중심으로, 선하고 악한 사람의 고정관념적인 이미지와 타인의 인정을 받고자하는 의도가 이유일 때이다. 수준 4는 공감적인(empathetic) 단계로서, 개인의 판단은 동정적 반응, 타인과 역할 바꾸기, 타인의 인간성에 대한 배려, 혹은 죄책감과 관련된 정적인 정서를 보인다. 수준 5는 강한 내면화(stronly internalized) 수준으로서, 돕거나/돕지 않는 행위에 대한 정당화는 내면화된 가치, 기준이나 책임감, 개인과 사회 계약적인 규정을 지속하려는 열망, 존엄성과 권리에 대한 믿음, 개인의 평등에 기초한다.

Eisenberg와 Roth(1980)는 아동의 도덕판단에 관한 종단연구를 실시하였다. 4-5세 아동을 면접한 결과 필요 중심의 추론(수준 2)과 인정/대인간 중심의 도덕 판단추론(수준 3)은 나이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반면에 쾌락적 도덕 판단(수준 1)은 나이의 증가에 따라 감소하였다. 실험실에서 아동의 행동을 관찰한 연구들도 대체로 나이든 아동이 나이 어린 아동에 비해 나누거나 돕는 친사회적 행동의 빈도가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Eisenberg, 1990). Eisenberg와 동료들의 연구에서는 아동기에서 청년기까지 11년 동안 종단 연구를 하였다. 쾌락적 추론은 점차 감소하였고, 반면에 필요 중심적 추론, 인정/대인 중심적 추론은 아동후기에서 청년기로 갈수록 점차 증가함을 보고하였다(Eisenberg, Miller, Shell, McNalley, & Shea, 1991). 이처럼 실험실에서나 일상의 관찰에서나 친사회적 행동이 연령과 함께 증가하는 것은 아동이 성장함에 따라 협조의 가치와 필요성 및 방법을 이해하는 인지적 능력이 발달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Kohlberg의 발달 단계와 Eisenberg의 것과의 다른 점으로는, Kohlberg의 단계 2를 Eisenberg는 쾌락적 수준(수준 1)과 필요 중심 수준(수준 2)으로 구분한 것이다. 필요 중심 수준은 공감에 기초하고 타인의 신체적이고 물질적이고 심리적인 필요에 대한 관심을 강조한다. 반면에, 쾌락적 수준에서는 동정적인 기초가 부족하면서 자기의 이익에 집중한다. 필요 중심 수준은 도덕적으로 성숙되었고, 초등학교 시절동안 증가하며, 공감과 친사회적 행동과 관련되어 있다(Eisenberg, 1986). 비록 Eisenberg가 Kohlberg의 도덕 추론의 두 번째 단계에서는 관점이 약간 다르지만, 세 번째 단계에서는 고정 관념적인 사회의 기대와 대인간 관계, 타인의 인정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일치한다. Kohlberg의 단계 1인 권위자에 무조건 복종하고 벌을 회피하는 단계는 Eisenberg의 이론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았다. 그 이유는 친사회적 도덕갈등에서 실제로 이 단계는 거의 언급되지가 않았기 때문이다(Eisenberg, 1986; Bear & Rys, 1994).

최근에 Kohlberg의 도덕 추론 단계와 교실 행동간을 연구한 Richards, Bear, Stewart와 Norman (1992)은 이들간에 U형의 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도덕 추론의 가장 낮은 단계 1과 성숙한 형태인 단계 3에 속하는 아동들은 더 바람직하게 행동하여서, 단계 1 아동들은 단계 3의 아동들만큼 교실행동에서 문제가 적었다는 결과였다. Kohlberg의 단계 2에 해당하는 아동들은 가장 큰 문제 행동을 보였다(Bear, 1989; Bear & Richards, 1981). 이러한 연구들은 Kohlberg의 단계 2의 추론이 교실의 문제행동, 청소년 비행과 관련이 된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Eisenberg(1986)는 문제 행동과 관련이 되는 것

은 Kohlberg의 단계 2 자체가 아니라, 자신의 이론에서의 쾌락 중심 수준이라고 주장하였다. 필요 중심 수준은 문제 행동과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최근에 Bear와 Rys(1994)는 Eisenberg의 수준 1인 쾌락적 수준의 소년들이 수준 2인 필요 중심 수준의 소년들보다 더 공격적이며, 사회적 능력이 낮고, 인기도도 낮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필요 중심 수준은 더 성숙한 단계라고 볼 수 있고, 동정심과 친사회적 행동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친사회적 도덕판단을 Eisenberg (1986)의 이론 체계인 필요 중심과 쾌락적 추론으로 구분하고, 이 수준들이 아동들의 교실 행동과 인기도와 관련이 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즉 쾌락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동정심이 부족한 수준 1의 아동들이 필요 중심의 수준 2에 속하는 아동들보다 더 많은 교실의 문제를 나타내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도덕 추론이 소년들 사이의 교실 행동과 관련이 되었고, 소녀들 사이에는 관련이 없었던 Bear와 동료들의 연구(Bear, 1989; Bear & Rys, 1994) 결과를 재검증해 보고자 하였다.

사회 측정지위(sociometric status) 즉 인기도는 도덕 추론과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변인이다. 사회측정지위, 또래지위(peer status) 또는 사회적 지위(social status)는 주로 또래로부터 거부 또는 수용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주로 또래평정(peer assessment) 방법을 통해 측정되어왔다(문은영 윤진, 1994). 전통적인 방법은 Moreno의 사회측정법(sociometric measure)이며, "함께 놀고 싶은", "함께 일하고 싶은", "생일날 초대하고 싶은"과 같은 문장에 대해 그에 해당하는 같은 반 친구를 지명(nomination) 또는 평정(rating)하는 것이다. 이 방법을 통해 인기아동과 비인기 아동으로 구분하고, 비인기 아동은 또래에 의해 수용되지 못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른 한가지는 Moreno의 사회측정법을 변형한 것으로 긍정적인 또래 지명과 부정적인 또래 지명을 함께 이용하는 방법이다 (Coie & Dodge, 1983). 즉 아동에게 "가장 좋아하는", "가장 싫어하는" (또는 "가장 덜 좋아하는") 같은 반 또래의 이름을 보통 3명씩 표시하게 한다. 이 방법 역시 Moreno의 측정방법에서 의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래의 수용여부를 측정하는 것이다.

일부 연구자들은 또래의 인기도란 역할 바꾸기 (role taking) 기회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이며, 이 지표는 도덕 발달에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Kohlberg, 1984). 친구들 사이에서 잘 융합하는 아동들은 고립된 아동들 보다 역할 바꾸기의 기회가 더 많아지며, 따라서 더 성숙한 도덕 추론을 하게된다. Colby, Kohlberg, Gibbs, 및 Leiberman (1983)은 종단연구에서 친구들과 잘 융합하는 10세 아동들은 고립된 아동들보다 도덕적으로 더 성숙하다고 보고하였다. 인기도와 관련된 많은 행동들은 도덕 추론과 관련이 된다. 협동, 공유와 같은 친사회적 행동을 포함하는 사회적 능력은 도덕 추론의 성숙도와 정적으로 관련되어 있다(Eisenberg, 1986; Underwood & Moore, 1982). 반면에, 친사회적, 반사회적 행동은 친구들의 거부, 인기와 각각 관련되어 있다(Coie, Dodge, & Kupersmidt, 1990의 개관연구). 이런 결과들은 도덕 추론은 반사회적/친사회적 교실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서 인기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도덕추론은 인기도에 간접적으로 매개된 영향을 주지만 더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결과가 Bear와 Rys(1994)에 의해 보고되었다. 인기도에서 사회적 행동에 의해 설명되는 변량을 제외한 후에도 도덕 추론은 인기도를 설명할 수 있었다. 즉 친구들은 나이에 적절하거나 조금 더 발달된 도덕 추론에 가치를 두어 평가를 하지만, 미숙하고 쾌락적인 도덕 추론은 사회적으로 이탈된 것으로 보고 거부할 수 있다. 친구의 외적 행동을 지각하는 것이 인기도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만큼, 친구의 도덕 판단에 관한 지각이 인기도에도 중요할 수 있다(Bear & Rys, 1994). 이론적으로 도덕추론이 인기도에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은, 친구

들이 사회적으로 적절한 행동에 가치를 둘 뿐 아니라 그런 행동의 사회인지적 기초에도 가치를 둔다는 것을 시사한다. 도덕추론이 인기도에 영향을 준다면, 도덕추론의 요인을 교과과정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며, 이는 아동의 인기도를 증진시키는 것에 도움이 될 것이다.

Bear와 동료들의 연구(Bear, 1989; Bear & Rys, 1994)는 도덕 추론, 교실행동과 인기도의 관계에서 성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소년들에서는 도덕추론과 공격성, 인기도는 관련이 되었지만 소녀들에서는 관련이 없었던 결과를 얻었다. Bear와 Rys (1994)의 연구에서 소녀들은 소년들보다도 공격성의 변량이 적었고 인기도의 점수에서도 변량이 적었다. 이는 소녀들이 소년들보다 덜 공격적으로 평가되고 부정적인 지명을 당하는 경우가 적기 때문이며, 공격성과 인기도의 낮은 변량이 소녀들에서 나타난 변인들간의 낮은 상관 결과를 설명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유사하게 Dodge & Feldman(1990)도 공격성과 또래 거부의 비율은 성별 간에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들의 친사회적 도덕추론 수준을 구분해보고, 쾌락적 추론 수준이 교실행동의 문제와 낮은 인기도와 관련되어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필요 중심적 추론과 동정심에 기초한 더 성숙한 추론은 사회적으로 자신감 있는 행동과 인기있는 사회 지위와 결합된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또한 도덕추론, 교실행동과 인기도와의 관계에서 성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고, 도덕 추론이 사회적 행동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인기도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사회적 행동에 의해 중개되지 않고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지를 검증해 보고자 한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경남 거제시 한 초등학교의 1, 2, 3 학년이었고 연구에 참여한 학생은 모두 206명이었으나, 질문지 작성이 불성실하거나 도덕수준의 분류가 곤란한 경우 자료분석에서 제외하여 189명의 자료가 최종적으로 분석되었다. 1학년은 65명(남: 37명, 여: 28명), 2학년은 64명(남: 34명, 여: 30명), 3학년은 60명(남: 26명, 여: 34명)이었다.

측정도구

도덕점수의 측정

Eisenberg에 의해 사용된 도덕적 갈등을 한국식으로 번역한 것을 사용하였다. 모두 네 개의 일화가 사용되었으며 각 일화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필요와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아동의 요구와 갈등이 된다. 아동이 자신의 행동을 선택하고 도덕적 추론을 하게 된다. 사용된 일화는 다음과 같다.

1) 나는 학교가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배가 몹시 고팠다. 주머니를 뒤져보니 어머니가 배고플 때 사먹으라고 준 500원이 있었다. 이 돈으로 500원 짜리 빵을 사먹을 수 있다. 그런데 옆에 친구도 배가 고프나 돈이 없다고 했다. 빵을 나누어 먹으면 내 몫이 작아지게 된다.

2) 오늘은 그림 그리기 대회 날이다. 나는 대회에서 그림을 잘 그려서 상을 받고 싶었다. 그림을 잘못 그렸을 경우를 대비하여 도화지 2장을 가지고 갔다. 그런데 친구가 도화지를 가지고 오질 않았다. 도화지 한 장을 친구에게 주면 나는 그림을 잘못 그렸을 경우 다시 그릴 수 없다.

3) 나는 멋진 선물을 가지고 제일 친한 친구의 생일잔치에 가고 있었다. 가는 도중에 길에서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고 울고 있는 다친 아이가 있었다. 그런데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다. 생일 잔치에 가는 것을 포기하고 다친 아이를 어머니에게 데려다 주면 생일 잔치는 끝나버린다.

4) 버스를 타려고 길을 가고 있는데 할머니께서 무거운 짐을 들고 길을 가고 계셨다. 할머니의 짐을 들어다 드리면 버스를 탈수가 없다. 다음 버스는 1시간 후에 온다.

초등학생이 사용한 반응범주는 다음의 네 가지 수준이었다. (1) 수준 1: 쾌락적, 자기중심: 자신의 이익과 결과에 주된 관심을 보인다. 도움 행동은 하지 않는 경우 이 수준에 속하며, 도울 경우에도 자

신의 직접적인 이익, 미래의 상호주의, 자신이 좋아하거나 필요로 하는 타인에 대한 배려 때문이라면 이 수준에 속한다(예를 들면, "친구니까"). (2) 수준 2: 타인의 필요 중심: 타인의 필요에 대한 관심을 보임(예를 들면, "친구는 배가 고프니까, 할머니가 힘이 드니까" 등) (3) 수준 3: 인정, 대인간, 편견 중심: 타인의 인정과 수용을 고려하거나 선, 악 행위의 획일적 관점을 가지는 것으로 특징 지워진다(예를 들면, "돕는 것은 착한 일이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4) 수준 4: 자기 반영적 동정 혹은 내면화 중심: 동정적 반응, 역할 바꾸기, 타인의 복지에 대한 관심을 가진다. (예를 들면, "도우면 기분이 좋으니까, 내가 그의 입장이 된다면..., 그는 슬프게 느낄거야..." 등)

도덕 판단은 범주점수와 범주수준의 두 가지로 측정되었다(Bear & Rys, 1994; Colby & Kohlberg, 1987). 먼저 범주점수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구해졌다(Eisenberg, Lennon, & Roth, 1983). 각각 일화에 답한 추론 내용을 범주수준으로 분류하였다. 네 수준은 각기 다른 가중치를 얻게된다. 즉 1수준은 1점, 2수준은 2점, 3수준은 3점, 4수준은 4점을 주었다. 범주점수는 각 수준을 언급한 백분위 비율을 수준가중치에 곱한 합이 도덕점수로 구해졌다. 네 가지 일화에 대한 범주 수준이 1수준이 1개, 2수준이 3개이었다면, 범주점수는 (1점) × (1/4×100) + (2점) × (3/4×100) = 175점이 된다.

또한 한 학생의 범주수준을 결정하였다. 네 일화의 범주수준에 1수준이 한번이라도 포함되었으며 3수준이 없을 경우에는 1수준으로 결정하였다. 네 일화의 범주수준에 3수준이 한 개라도 포함되었으며 1수준이 없을 경우에는 3수준으로 결정하였다. 모두 2수준일 경우에는 2수준으로 결정하였다. 위 세 수준 이외에 속하는 아동들은 수준이 불분명하므로 분석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평정자의 신뢰도를 검사하기 위해서 두 사람이 범주수준을 결정하였는데, 두 사람의 채점이 불일치한 경우에는 자료에서 제외하였다.

또래간 인기도 (사회 측정 지위)

친구들에 의한 선호도(인기도) 정도를 측정하였다. 아동들에게 같은 반에서 누구와 가장 놀고 싶은지 3명의 이름을 쓰게 하고(정적점수), 가장 놀기 싫은 3명의 이름을 쓰도록 하였다(부적 점수). 인기점수는 각 아동이 얻은 정적 점수에서 부적 점수를 뺀 값이었다.

교사의 평정

본 연구에서는 김지신(1996)의 연구에서 사용한 교사의 평정척도와 Hightower, Work, Cowen, Lotyczewski, Spinell, 및 Guare(1986)이 사용한 교사-아동 평정 척도(T-CRS)를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우선 김지신(1996)은 친사회적 행동, 공격·방해 행동, 통솔력, 도덕적 행동, 및 수줍음의 5가지 영역에 대한 사회적 행동을 교사가 평가하였다. 교사 평정의 설문지는 총 2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5가지 사회적 행동에 대한 평가를 5점 척도로 표시하도록 구성되었다. Hightower와 동료들(1986)이 사용한 척도에서는 6개의 하위척도(주장적 사회기술, 좌절에 대한 인내, 과제중심, 학습부진, 부끄러움-불안과 공격성)에 43개 문항이 포함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김지신(1996)에 포함된 친사회적 행동, 공격·방해 행동, 통솔력, 도덕적 행동 및 수줍음의 5가지 영역의 25개 문항과 Hightower등(1986)에서 과제중심, 좌절인내, 사교성, 학습부진의 네 하위영역에 해당하는 문항 24개를 본 연구에 포함시켜 9영역의 49문항을 사용하였다. 교사는 학생의 행동특성을 5점 척도에서 평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의 신뢰도는 공격-방해 .89, 부끄러

표 1 학년 및 성별 도덕추론 점수의 평균 (표준편차)

학년	소년	소녀	전체
1	175 (30)	174 (27)	174.6 (28)
2	194 (39)	198 (32)	196.0 (34)
3	181 (43)	191 (34)	187.5 (38)

표 2 소년, 소녀에서 도덕점수, 행동특성, 인기도간의 상관계수

	도덕점수	사회적 능력	공격성	부끄러움-불안	학업부진
사회적 능력	.288**				
	(.135)				
공격성	-.185+	-.747***			
	(.069)	(-.617***)			
부끄러움-불안	-.155	-.490***	.212*		
	(-.058)	(-.501***)	(-.032)		
학업부진	-.355**	-.770***	.631***	.476***	
	(-.174+)	(-.713***)	(.484***)	(.364**)	
인기도	.288**	.587***	-.548***	-.291**	-.524***
	(.143)	(.586***)	(-.448***)	(-.233*)	(-.536***)

( )안은 소녀의 상관계수
+ P<.10; * P<.05; ** P<.01; *** P<.001

움-불안 .74, 학습부진 .88, 친사회적 행동 .88, 통솔력 .88, 규칙 준수(김지신의 '도덕적 행동'에 해당함) .85, 과제중심 .93, 좌절인내 .69, 사교성 .60이었다. 이중에서 친사회적 행동, 통솔력, 규칙준수, 과제중심, 좌절인내, 사교성은 사회적 능력으로 나타내며 (Bear & Rys, 1994), 이들의 신뢰도 계수는 .94이었다.

절 차

모든 학생들에게 반 친구들 중에서 가장 놀고 싶은 세 명의 이름과 가장 놀고 싶지 않은 세 명의 이름을 쓰도록 하였다. 친도덕성 판단을 위하여 실험자가 학생을 한 명씩 개별적으로 면접하였다. 학생들에게 네 가지 일화를 그린 그림을 하나씩 보여주면서 일화를 들려주고, 아동이 바로 이해하였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황을 말해보도록 하였다. 그 후에 아동에게 자신의 행동을 선택하도록 하고 그 이유를 말하도록 하였다. 이 내용은 기록되었다. 또한 담임 교사는 각 아동의 교실행동을 평정하였다.

결 과

학년 및 성별 도덕점수

학년 및 성별에 따른 도덕점수의 평균이 표1에 제시되었다. 이 자료로 변량분석을 한 결과, 학년의 주효과가 유의미하였고, $F(2,183)=6.234$, $p<.002$. 성별의 주효과와 상호작용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F<1$. 2학년의 점수는 196.09로 가장 높았고, 1학년은 174.62점, 3학년은 오히려 2학년 점수보다 낮은 187.50이었다. 학년의 주효과를 LSD로 사후분석을 한 결과, 1학년과 2학년은 차이가 있었고 1학년과 3학년은 차이가 있었으나, 2학년과 3학년은 차이가 없었다.

변인들간의 상관관계

표2에서 볼 수 있듯이, 소년들의 도덕추론점수는 높은 사회적 능력, 낮은 학업부진, 높은 인기도, 낮은 공격성과 상관되어 있었다. 이런 도덕추론과의 상관은 소녀에서는 보이지 않았다. 상관 관계에서 보인 성 차이는 소녀들 사이에서 공격성과 인기도

표 3 도덕수준과 성별에 따른 인기도와 교실행동의 평균(표준편차)

	도덕수준					
	쾌락 필요중심		필요 중심		인정/대인간 필요중심	
	남 n=54	여 n=42	남 n=25	여 n=33	남 n=18	여 n=17
인기도	-1.96 (5.97)	-.02 (4.62)	1.12 (4.74)	1.81 (3.27)	1.00 (4.55)	0.76 (5.09)
사회적 능력	3.08 (.53)	3.50 (.50)	3.33 (.50)	3.60 (.48)	3.58 (.58)	3.64 (.34)
공격	2.49 (.92)	1.78 (.76)	2.06 (.81)	1.65 (.63)	2.12 (.89)	1.97 (.68)
학업부진	2.87 (.93)	2.22 (.85)	2.36 (.75)	2.01 (.79)	1.95 (1.01)	1.91 (.63)
부끄러움-불안	2.25 (.68)	2.11 (.69)	2.14 (.66)	2.09 (.65)	2.11 (.64)	2.00 (.65)

점수에서의 낮은 변량 때문으로 보인다(Bear & Rys, 1994). 이 두 점수에서 소녀들의 변량은 소년들보다도 유의미한 수준으로 작았다(공격성: Levene의 $F(1, 187) = 6.479$, $p<.05$; 인기도: $F(1, 187) = 3.011$, $p<.05$).

도덕수준에 따른 인기도와 교실행동 특성

쾌락적 추론 수준과 필요 중심의 수준, 그리고 인정/대인간 중심의 수준이 인기도, 교실행동 특성에서 다른지 여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소녀들에서는 도덕 추론과 행동 특성과의 상관이 없었기 때문에 소년과 소년의 자료를 따로 분석하였다. 소년의 인기도, 사회적 능력, 학업부진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각각 일원 변량분석한 결과, 도덕수준의 주효과는 유의미하였다, 인기도: $F(2, 94)=3.716$, $p<.05$; 사회적 능력: $F(2, 94) = 6.263$, $p<005$; 학업부진: $F(2, 94) = 7.817$, $p<.001$. 공격성의 경우 도덕수준의 주효과는 경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F(2, 94) = 2.503$, $p<087$. 반면에 부끄러움-불안의 경우 도덕수준의 주효과는 없었다, $F<1$. 쾌락 중심 수준에 속하는 소년들은 상위 수준에 속하는 소년들보다도 인기도가 낮았고, 사회적 능력이 낮았고, 학업부진이 컸고, 공격성이 높은 경향이 있었다. 필요 중심(수준 2)과 인정/대인간 중심(수준 3)에 속하는 소년들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보이지 않았다.

소녀의 경우, 인기도, 사회적 능력, 학업부진, 공격성과 부끄러움-불안은 모두 도덕수준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도덕 수준별 소년과 소녀의 인기도, 사회적 행동, 공격성, 부끄러움-불안과 학업부진의 평균과 표준편차가 표 3에 제시되었다[2].

인기도에 미치는 간접적, 직접적 도덕추론의 영향

소년들의 인기도에서 사회적 능력과 공격성에 의해 설명되는 변량을 제외한 후에 친사회적 도덕추론이 인기도의 변량을 어느 정도 설명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인기도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위계적

2) 인기도에서 평균보다 표준편차가 큰 것은 인기도의 점수 범위가 32점(-18에서 +14점까지)으로 크기 때문에 표준편차가 커졌고, 반면에 평균은 +, -점수를 합하였기 때문에 작게 나타난 것으로 보여진다.

(hierarchical) 회귀분석을 하였다. 사회적 능력, 공격성, 도덕추론, 학업능력의 순서로 공식에 첨가되었다. 표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덕추론은 사회적 능력과 공격성이 통계적으로 통제되고 난 후에 독립적으로 인기도의 변량을 설명하지는 못하였다. 이 결과는 도덕추론이 인기도에 미치는 영향은 사회적 행동을 통해서 간접적인 것이지, 직접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또 다른 분석은 사회적 행동이 인기도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하여, 도덕행동을 매개로 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하였다. 도덕추론, 사회적 능력, 공격성, 학업부진의 순서로 공식에 첨가되었다. 도덕추론을 매개로 한 분석에서 도덕추론이 통제되고 난 후에, 사회적 능력과 공격성이 인기도를 유의미하게 예언해주고 있었다. 이 결과는 사회적 행동은 도덕추론과는 독립적으로 인기도를 예언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기도와 행동특성

소년들과 소녀들에서 어떤 교실 행동의 특성이 인기도를 예언하는 변인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인기도를 종속변인으로 하고 6가지 사회적 능력의 하위요인들인 친사회적 행동, 통솔력, 도덕적 행동, 과제중심, 좌절인내, 사교성과 3가지 문제행동인 공격성, 부끄러움-불안, 학습부진을 사용하여 단계적(stepwise)회귀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로 소년과 소녀에서의 인기도를 예언하는 변인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표 5를 참조하면 소년의 인기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공격성(β = -.268, $p<.05$), 사교성(β = .317, $p<.01$), 학습부진(β = -.211, $p<.05$)이며, 이들 변인은 인기도의 변량의 42.8%를 설명하였다($F(3, 93) = 23.170$, $p<.0001$).

반면에 소녀의 인기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과제 중심(β=.462, $p<.001$), 친사회성(β =.221, $p<.05$)이며, 이들 변인은 인기도 변량의 35.8%를 설명하고 있다($F(2, 89)= 24.815$, $p<.0001$).

표 4 소년에서 인기도를 예언하는 위계적 회귀분석

변인명	β	R	R^2	F변화
사회적 행동 매개				
사회적 능력	.290	.587	.345	50.047***
공격성	-.228	.610	.372	3.992*
도덕추론	.117	.624	.389	2.669
학업부진	-.104	.627	.393	.621
도덕추론 매개				
도덕추론	.117	.286	.083	8.611**
사회적 능력	.290	.600	.361	40.785***
공격성	-.228	.624	.389	4.370*
학업부진	-.104	.627	.393	.621

* p<.05; ** p<.01; *** p<.001

표 5 소년, 소녀에서 교실행동특성이 인기도를 예언한 회귀분석 결과 요약

	소년 β	소녀 β
공격성	-.268*	-.107
부끄러움-불안	.035	-.009
학습부진	-.211*	-.057
사교성	.317**	.078
친사회성	.140	.221*
좌절인내	-.119	-.009
과제중심	-.112	.462***
통솔력	-.087	.135
규칙준수	-.084	.061
R^2	.428***	.358***

* p<.05; ** p<.01; *** p<.001

소년에서는 낮은 공격성, 높은 사교성, 학업부진의 감소가 인기도를 잘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소녀에서는 과제중심과 친사회성이 인기도를 예언하는 변인이었다.

논 의

소년들의 도덕추론은 교실행동과 관련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이전의 연구들과 일치한다(Bear, 1989; Bear & Rys, 1994). 쾌락적 추론 수준에 속하는 소년들은 필요중심 수준에 속하는 소년들보다도 사회적 능력이 부족하였고, 공격행동이 증가되었고, 학업부진이 증가되었다. 소년들에서 쾌락적 추론 수준이 사회적응문제와 관련이 되며, 필요 중심적 추론 수준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소녀에서는 도덕추론과 교실행동과의 상관은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Eisenberg(1986)의 이론을 지지한다. 비록 쾌락 중심과 필요 중심의 두 수준이 Kohlberg의 단계 2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이들은 질적으로 다른 것을 보여준다. 초기 연구들은 Kohlberg의 단계 2의 추론 자체가 타인에 대한 공격성과 같은 교실행동의 문제를 잘 설명한다는 것이었다(Bear & Rys, 1994). 그러나 Eisenberg(1986)의 주장에 의하면, Kohlberg의 단계 2의 구조가 쾌락적 추론과 필요 중심의 추론에 질적으로 같은 기초가 된다고 볼 수 없고 교실내의 공격성에 기여하는 것은 Kohlberg의 단계 2 자체가 아니라 쾌락적 추론 - 공감의 부족, 대인간의 무관심, 규칙과 사회인지의 이해와 존중의 부족 등 - 이라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도 필요 중심 수준보다도 쾌락적 수준에 속하는 소년들에서 사회적 능력의 부족, 공격행동의 증가, 학업부진의 증가를 나타낸 것은 Eisenberg (1986)의 주장을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쾌락적 추론을 하는 소년들과는 달리, 필요 중심과 인정/대인간 중심의 추론을 하는 소년들에서의 교실행동은 유사하였다. 이것은 Bear와 Rys(1994)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필요중심과 인정/대인간 중심 관점은 공감, 사회적 조망, 동정적 책임감 등과 같은 유사한 특성을 포함하는 것 같다. 공감에 기초한 필요 중심의 수준과 인정/대인간 수준은 반사회적 행동을 억제하고 친사회적 행동을 지원한다. 반면에 이기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쾌락적인 추론은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 영향을 주는 데 둔감하다고 볼 수 있다(Bear & Rys, 1994; Miller & Eisenberg, 1988).

쾌락적 수준에 속하는 소년들은 상위 수준(필요중심, 인정/대인간 수준)에 속하는 소년들보다도 인기도가 비교적 낮았다. Dodge 와 Feldman (1990)에 의해 지적된 것처럼, 사회 인지적 결손과 부족은 사회적 거부로 향하는 여러 경로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 도덕추론에서의 결손은 공격성으로 반영되어 나타나고, 다시 이것은 동료의 거부로 이어질 수 있다.

Bear와 Rys(1994)의 연구에서는 공격성이나 사회적 능력과 같은 사회적 행동이 인기도에 주는 영향력을 배제한 후에도 도덕추론이 독립적으로 인기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그렇지 못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도덕추론이 인기도에 미치는 영향은 사회적 행동을 통해서 간접적인 것이고, 직접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반면에 사회적 능력과 공격성은, 도덕추론이 통제되고 난 후에, 인기도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도덕추론과 사회적 행동이 관련되어있고 사회적 행동은 독립적으로 인기도에 영향을 주지만 도덕판단은 그렇지 못한 것을 의미한다. 필요중심과 인정/대인간 추론은 공격행동을 막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받아드릴 수준으로 공격성을 유지하고 심각성을 줄여서 또래 거부를 줄여줄 것이다.

소년과 소녀들의 인기도를 예측하는 교실의 행동 특성들도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능력의 하위요인들과 문제 행동들을 변인으로 사용한 결과, 소년에서는 공격성, 사교성, 그리고 학업부진이 인기도를 예언하는 특성으로 나타났다. 즉 공격성이 낮을수록, 사교적일수록, 학업부진이 덜할수록 인기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소녀에서는 과제중심과 친사회성이 인기도를 예언하는 특성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소년에서는 도덕 추론과 교실행동, 인기도와는 연관되어 있었지만, 소녀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소년과 소녀들의 다르게 나타난 결과의 성 차이는 해석하는데 주의가 필요하다(Bear & Rys, 1994). Dodge & Feldman(1990)은 공격성과 또래 거부의 비율에서 나타난 성 차이가 사회인지, 행동, 인기도간의 관계에서의 성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Bear와 Rys (1994)의 연구에서처럼, 소녀들은 소년들보다도 공격성의 변량이 적었는데, 이는 소녀들이 덜 공격적으로 평가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소녀들은 소년들보다 인기도의 점수에서도 변량이 적었는데, 이는 소녀들이 부정적인 지명을 당하는 경우가 적었기 때문일 것이다. 공격성과 인기도의 낮은 변량이 소녀들에서 나온 낮은 상관 결과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소녀에서 인기도의 변량이 소년에서보다 적었던 본 연구와 Bear와 Rys(1994)의 결과는 인기도를 측정할 때에 동성의 친구를 지명하는 것이 아니라 한 반의 친구를 지명하였기 때문에 나타났을 가능성이 크다. 초등학생에서 동성의 친구를 지명하여 인기도를 측정한 연구는 드물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와 비교할 수는 없지만, 중학교 남학생과 여학생에서 동성의 친구를 지명하도록 하여 인기도를 측정한 이미화(2000)의 연구에서는 또래의 수용과 거부에서 남녀간의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덕적 추론 수준에 따른 소녀들의 교실 행동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다른 연구에서 보고된 것처럼(Brodzinsky, Messer, & Tew, 1979; Cairns, Cairns, Neckerman, Ferguson, & Gariepy, 1989), 소녀들의 공격성은 남의 험담을 한다거나 남의 것을 가져가는 등과 같은 덜 직접적인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소녀들의 반사회적 행동이 본 연구에서는 측정되지 않았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반면에 소년들은 신체적이고 언어적인 공격성을 보이기 때문에 교사에 의해 쉽게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소녀들에서 보이는 간접적이고 미묘한 형태의 공격은 교사에 의해서 평정되기에는 부적절하고, 오히려 또래들이 이런 행동을 평정하는 데에 더 적합하다고 본다(French, 1990).

결론적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아동의 행동 특성, 도덕추론, 인기도간의 관계가 상호보완적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인기도가 또래를 지지하거나 거부함으로서 도덕추론에 영향을 주는 반면에, 사회 관계가 도덕 발달을 고무하며, 도덕발달은 공격성과 같은 사회적 행동으로 드러나면서 인기도에 영향을 준다(Parker & Asher, 1987).

참고문헌

김지신(1996). 어머니의 전통-근대 가치관 및 양육 행동과 아동의 사회적 행동.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문은영, 윤진(1994). 또래의 수용이 청소년 초기의 고독감과 비행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7(1), 44-63.

송종란(1995). **발달심리학**. 서울: 학지사.

이미화(2000). 청소년의 또래지위에 따른 심리적 안녕감과 인지적, 행동적 특성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Bear, G., G. (1989). Sociomoral reasoning and antisocial behaviors among normal sixth graders. *Merrill-Palmer Quarterly, 35*, 183-296.

Bear, G. G., Richards, H. C. (1981). Moral reasoning and conduct problems in the classroom.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3*, 664-670.

Bear, G. G., & Rys, G. S. (1994). Moral reasoning, classroom behavior, and sociometric status among elementary school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30*, 633-638.

Brodzinsky, D., Messer, S. M., & Tew, J. D. (1979). Sex differences in children's expression and control of fantasy and overt aggression. *Child Development, 50*,

372-379.

Cairns, R B, Cairns, B. D., Neckerman, H. J, Ferguson L. L., & Gariepsy, J. L. (1989). Growth and aggression: 1. Childhood to early adolesc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25*, 320-330.

Coie, J. D., & Dodge, K. A.(1983). Continuities and changes in children's social status: A five-year longitudinal study. *Merrill-Palmer Quarterly, 29(3)*, 261-281.

Coie, J. D., K. A. Dodge & Kupersmidt J. B. (1990). Peer group behavior and social status. In S. R. Asher and J. D. Coie (Eds.), *Peer rejection in childhoo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Colby, A., & Kohlberg, L. (1987). *The measurement of moral judgment: Vol. 1 Theoretical foundations and research validatio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Colby, A., & Kohlberg, L., Gibbs, J., & Leiberman, M. (1983). A longitudinal study of moral judgment.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48*, 1-124.

Dodge, K.A., & Feldman, E. (1990). Issues in social cognition and sociometric status. In S. R. Asher & J. D. Coie (Eds.), *Peer rejection in childhood*(pp. 119-155).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Eisenberg, N. (1986). *Altruistic cognition, emotion, and behavior.* Hillsdale, NJ: Erlbaum.

Eisenberg, N.(1990). Prosocial development in early and mild-adolescence. In R. Montemayor, G. R. Adams, & T. P. Gullotta (Eds.), *Form childhood to adolescence: A transitional period?* Newbury Park, CA: Sage.

Eisenberg, N., Lennon, R., & Roth, K. (1983). Prosocial development: A longitudinal study. *Developmetal Psychology, 19*, 846-855.

Eisenber, N., Miller, P. A., Shell, R., McNalley, S., & Shea, C. (1991). Prosocial development in adolescence: A longitudinal study. *Developmetal Psychology, 27*, 849-857.

French, D. C. (1990). Heterogeneity of peer-rejected girls. *Child Development, 61*, 2028-2031.

Hightower, A. D., Work, W. C., Cowen, E. L., Lotyczewski, B. S., Spinell, A. P., Guare, J. C., & Rohrbeck, C. A. (1986). The Teacher-Child Rating scale: A brief objective measure of elementary children's school problem behaviors and competencies. *School Psychology Review, 15*, 393-409.

Kohlberg, L. (1984). *Essays in moral development: Vol. II. The psychology of moral development.* San francisco: Harper & Row.

Miller, P. A., Eisenberg, N. (1988). The relation of empathy to aggressive and externalizing/ antisocial behavior. *Psychological Bulletin, 103*, 324-389.

Parker, J. G. & A. S. Asher. (1987). Peer relation and later personal adjustment: Are low accepted children at risk?. *Psychological Bulletin, 102*, 357-389.

Richards, H. D., Bear, G. G., Stewart, A.L., & Norman, A. D. (1992). Moral reasoning and classroom conduct: Evidence of a curvilinear relationship. *Merrill-Palmer Quarterly, 38*, 176-190.

Underwood, B., & Moore, B. (1982). Perspective-taking and altruism. *Psychological Bulletin, 91*, 143-173.

한국심리학회지 : 발달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 Development
2000, Vol 13, No 2. 53-64

Prosocial Moral Reasoning, Classroom Behavior, and Sociometric Status Among Elementary School Children

Jong-Lan Song Jeung-Ryeul Cho

Faculty of Social Science Kyungnam University

Relations among prosicial moral reasoning, classroom behavior, and sociometric status(social preference) were investigated in a sample of 189 1st, 2nd, and 3rd graders. Students were differentiated into 3 levels of hedonistic, needs-oriented, and approval/interpersonal-oriented prosocial reasoning. Results showed that hedonistic and needs-oriented moral reasoning were differently related to teachers' ratings of classroom behavior and to social preference. Among boys, hedonistic moral reasoning was associated with the lack of social competencies, acting-out behavior, and low social preference. Girls did not show this kind of associations. Moral reasoning was found to affect social preference only indirectly, but not directly. Results support Eisenberg's (1986) claim that hedonistic and needs-oriented reasoning are qualitatively distinct.